

時調의 社會的 機能 考察*

— 朝鮮朝 社會와 時調의 關係를 중심으로 —

朴奎洪**

〈국문초록〉

詩의 사회적 기능이 있듯이, 조선조의 시조도 나름의 사회적 기능이 있었다. 16세기에 들면서 시조는 사대부들에 의해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르로 주목을 받았다. 유교적 이념을 전달할 적절한 도구로 본 것이다. 특히 퇴계는 시조가 온유둔후한 내용을 담아 歌者나 聽者가 모두 유익함이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유교의 철학적 사유를 담은 시조나 훈민가는 향유자들로 하여금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토록 하여 조선왕조 체제유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 당시 경기체가와 같은 기능을 갖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신분질서의 요동, 통화경제의 발달, 부의 편재, 향락 추구 등의 변화가 초래된 조선 후기에 들면 조선 전기에 억제되었던 남녀성애를 노래하는 사설시조가 성행한다. 성애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이들 시조는 당시의 향락적 분위기를, 부패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결국 조선조 붕괴에 일조하게 된다.

유교이념의 시조와 남녀성애의 시조, 兩者는 한쪽이 성하면 한쪽이 쇠하는 상관관계는 조선조의 사회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진행되었다.

사설시조 담당층의 문제는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다. 향유계층의 폭이 넓어 꼭히 어느 계층을 담당층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그 작자는 전문가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현인군자의 正품을 찾기를 표방하는 박

* 이 논문은 경일대학교 2002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慶一大

효관 쪽보다는 그가 비난한 격낮은 소리패일 가능성이 크다.

망국의 노래쯤으로 여겨지는 고려 속가에 비해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가 훨씬 더 음설한 데도 사설시조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시각이 용인되는 것은 고려 속가가 고려왕조의 멸망에 일조한 데 그쳤다면, 사설시조는 조선왕조의 몰락과 봉건체제의 붕괴에 아울러 영향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유교이념, 성애, 향락, 사설시조, 훈민가, 봉건체제, 부패, 사회적 기능, 가객, 기녀

I. 緒 論

朝鮮朝 儒者들이 숭앙하던 孔子가 “詩三百 一言以蔽之曰 思無邪(『論語』‘爲政’)” 혹은 “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 亦奚以爲(『論語』‘子路’)”라고 『詩經』에 대해 언급한 것은 詩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茶山 丁若鏞(1762-1836)은 시의 사회적 기능을 특별히 강조하여 시란 모름지기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해야 하며, 시국의 잘못과 풍속의 피폐함을 통분해야 하고, 美刺와 勸懲의 뜻이 있어야 한다’¹⁾고 했다.

時調²⁾가 歌辭와 더불어 조선조 시가문학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는 데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비록 발생 시기에 대해서

1) “不愛君憂國 非詩也 不傷時憤俗 非詩也 非有美刺勸懲之義 非詩也”(『與猶堂全書』‘寄淵兒’)

2)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시조창이든 가곡창이든 어떤 唱曲으로 가창되었든 그 노랫말을 지칭하는 용어로 ‘時調’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범주도 단시조와 장시조로 지칭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시조가 조선조에 왕성히 창작되고 향유되었던 '조선조의 대표적 시가문학'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시조가 조선조에 크게 흥성한 데에는 그만큼 시대적·사회적 요구가 있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시조 역시 사회적 기능이 없을 수 없다.

조선조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性理學이고, 이를 신봉하는 儒者들이 조선에까지 이어진 많은 고려 시가에 대해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가졌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雙花店이나 淸歌와 같은 등속의 노래들이 모두 사람을 꺾어서 악하게 만든다”³⁾거나 翰林別曲類가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⁴⁾하다고 한 언급은 모두 그런 시각에 의한 평가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쌍화점>이나 <이상곡>, <북전>의 음설한 가사를 산개한 것⁵⁾도 같은 맥락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일임에 틀림없다.

고려의 경기체가나 속가가 풍속을 해치고 사람들을 타락시킨다고 본 유자들이 주목한 것은 보다 짧고 정제된 노래—우리가 시조로 지칭하는—였다. 시조를 그들이 지향하는 儒家的 價値觀을 실어나를 적절한 도구로 본 것이다. 유교이념을 표명한 일련의 시조는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에 의해 지어진 목적문학이요, 조선조라는 특정의 여건 아래에서 빚어진 사회적 소산물이었다. 이렇게 조선조의 전반에 걸쳐 창작된 '유교이념의 시조'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질의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왕조라는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데 한몫을 한다.

그러나 壬·丙 兩亂을 거치면서 시조는 그 형식상·내용상·악곡상

3) 今之爲歌者 多出於桑僕 如雙花店淸歌之屬 皆誘人爲惡 此何等語也 使風俗靡靡 日就於下 其淫褻敗理 至有不忍聞者(答黃學正仲學, 『武陵雜稿』 原集 卷五, 『韓國文集叢刊』 27, 13면)

4)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尙(退溪 陶山十二曲 跋)

5) “如西京別曲 男女相悅之詞 甚不可樂譜 則不可卒改 依曲調別製歌詞何如”(『成宗實錄』 卷215, 19年 4月). “先是命西河君任元濬 武靈君柳子光 判尹魚世謙 大司成成俔 刪改雙花曲履霜曲北殿 歌中淫褻之詞”(『成宗實錄』 卷240, 21年 5月)

큰 변화를 겪는다. 보다 자유로운 형식의 외설적인 사설시조가 '蔓橫'이나 '弄' '樂' 등으로 활발히 가창된 것이다. 이 노래들은 사회적 기능면에서 볼 때 유교이념의 시조와는 반대편에 있음이 분명하다. 봉건사회 해체기에 극성한 이 퇴폐적 사설시조가 조선왕조 붕괴에 일정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만한 것이다. 곧, 조선왕조로 봐서 유교이념의 시조들이 조선조 사회체제 구축의 순기능을 했다면, 男女性愛를 다룬 외설적인 시조는 조선조를 붕괴시키는 역기능을 수행한 셈이라는 것이다.

훈민가류 시조나 노골적 성애의 내용을 담은 시조의 문학성 부재에 대한 지적은 종종 있으나 이들 시조가 조선 사회에 어떤 기능을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려 속가에 대해서는 남녀의 정사가 다뤄진 말세의 노래⁶⁾라는 등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평가를 답습하면서도 이보다 훨씬 더 음설한 사설시조에 대해서는 인간의 성적 욕구를 솔직히 표출한 것으로 보는 견해에 많은 학자들이 좌단⁷⁾하는 듯한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중적 잣대가 타당한 것인지, 그것이 용인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다. 또, 이들 사설시조가 '양반 등 사회적으로 우월한 계층에 의해 창작·향유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⁸⁾와 '중인층(내지 중간층)의 체험, 욕구, 의식이 투영된 것으로 그들의 계층적 퇴폐성과 향락적 유희공간의 산물'로 보는 견해⁹⁾도 타당성 있는 접점을 찾지 못

6) 이병주, 『고전의 산책』, 민족문화추진회, 1985, 124면.

7) 조윤제가 사설시조에 대하여 “이 얼마나 自然스러운 표현인가. 여기에 人間性은 露骨的으로 나타나 이제는 벌써 假飾조차 없어져서 우리는 참다운 人間을 대하였다.”(조윤제, 『韓國文學史』(개정3판), 探求堂, 1974)고 한 언급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8) 김학성, 사설시조의 담당층,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405-413면.

9) 고미숙, 사설시조의 역사적 성격과 그 계급적 기반 분석, 『어문논집』 30집, 고

하고 있는 듯하다.

본고에서는 무엇보다 조선조라는 특정한 사회를 바탕으로 창작된 유교이념의 시조와 조선 후기에 쏟아져 나온 노골적인 성애의 시조를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이 시조들이 조선조라는 특정의 사회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함께 흥성·쇠퇴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논란되어 온 사실시조의 담당층에 대한 답도 아울러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儒敎理念의 時調와 體制維持의 順機能

조선조는 주지하다시피 儒家思想을 건국의 이념적 기반으로 삼아 출범했다. 개국의 주역이었던 신흥 사대부들은 창건 초기부터 斥佛崇儒의 국책으로 정치 조직, 사회 제도 등을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노력은 그 결과의 좋고 나쁨을 떠나 수세기 동안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유교적 정신문화나 가치관 속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었다.

조선조의 지배계층으로 자리잡은 사대부들은 성리학에 입각한 가치관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유교적 사회 질서를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세종조에 집현전 부제학 兪循(?-1435) 등이 왕명에 의해 「三綱行實圖」(1434년)를 저술한 일, 중종조에 다시 대제학 申用漑(1463-1519) 등이 왕명으로 「續三綱行實圖」(1514년)를 편찬하고 崔淑生(1457-1520)이 「小學諺解」를 편찬한 일 등은 모두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병행하여 우리가 시조라고 지칭하는 시가 양식도 조선조가 유교 사회로 숙성되도록 하는 데 한몫을 하게 된다.

물론 조선조 개국 초기의 詩歌는 대체로 易姓革命의 당위성을 표명하고 王業을 송축하는, 樂章이 주류를 이루었다. 鄭道傳(1337-1398)의 〈納氏歌〉나 〈靖東方曲〉〈文德曲〉, 權近(1352-1409)의 〈霜臺別曲〉, 卞季良(1369-1430)의 〈華山別曲〉, 尹淮(1380-1436)의 〈鳳凰吟〉 등 많은 악장이 지어져서 궁중 祭禮樂이나 宴樂으로 사용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龍飛御天歌〉나 〈月印千江之曲〉같은 새로운 형태의 頌詠歌가 나온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이 시기에는 아직도 시조가 크게 주목받지는 못한 셈이다. 그러나 강호의 생활을 즐기면서도 군운을 잊지 않는 孟思誠(1360-1438)의 〈江湖四時歌〉와 같은 작품은 시조가 茶山이 말한 ‘愛君’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江湖에 봄이드니 미친興이 절노난다

濁膠溪邊에 錦鱗魚 安酒 | 로다

이름이 閑暇히움도 亦君恩이샀다 (『瓶歌』 55)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시조는 유가의 이념을 펴는 데 쓰일 가장 유용한 시가양식으로 부상하게 된다. 16세기는 알다시피 훈구파에서 사림파로 지배세력이 교체되는 시기였다.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부상한 사림파는 “훈구세력과는 달리 향촌사회에서 중소지주로서의 경제적 기반과 재지사족으로서의 신분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향촌지배였다.”¹⁰⁾ 재지사족들은 ‘孝悌忠信好禮不亂者’¹¹⁾와 ‘年高有德及才行者’¹²⁾를 앞세우는 鄉射禮와 鄉飲酒禮를 통하여 不孝·不悌·不睦·不任恤한 자를 다스려 향촌지배를 모색했지만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龔巖이 退溪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의

10)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230면.

11) 『세종실록』 권133, 五禮, 軍禮儀式鄉射儀 조.

12) 『세종실록』 권133, 五禮, 家禮儀式鄉飲酒 조.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향리의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니 늙은 내가 능히 교화시킬 바는 아니지만 향중에 살고 있는 우두머리 백성으로서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令公[退溪] 같은 이는 사람들이 畏愛하는 바 있으니, 만약 와서 表率한다면 3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¹³⁾

농암은 향리의 풍속이 아름답지 못함을 토로하고 있고, 이를 교화하는 방안을 퇴계에게서 구하고자 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퇴계는 '퇴계향약'으로 불리기도 하는 「예안약조」를 작성했다.¹⁴⁾ 지방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겠지만, 향리의 풍속을 교화함으로써 향촌지배가 용이하다는 생각은 재지사족들에게는 거의 공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丁克仁(1401-1481)이 태인에서 草廬를 짓고 不憂軒이라 명명하고, 그것으로 자호하면서 향리자제를 모아 가르치고 鄉約契軸을 만들어 백성을 교화한 것도 같은 필요성에 의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연시조 형태의 訓民歌는 이런 향촌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周世鵬(1495-1554)이 海西를 다스릴 때에 백성의 풍속이 質質한 것을 보고 사람의 큰 윤리를 밝히기 위하여 지었다고 하는 〈五倫歌〉 6수 중에서 종과 상전의 신분 질서를 강조한 다음과 같은 작품은 이런 내용을 필요로 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 ㉠ 동과 항것과를 누라서 삼기신고
 벌와 가여미사 이 브들 몬져 아니
 흐 므스매 두뜰업시 소기디나 마음생이다 (武陵續集, 『時全』 52)

이런 訓民時調는 16세기와 17세기에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위의 주세

13) 『葬巖集』 권1, 書, '答退溪'.

14) 정진영, 앞의 책, 127면.

봉 외에도 宋純(1493-1582)이 <오륜가>를 짓고, 鄭澈(1536-1593)이 강원도 백성의 교화를 위하여 <훈민가>를 지었다. 이외에도 朴善長(1555-1616), 金尙容(1561-1637), 李叔樑(1519-1592) 등의 사족들이 훈민시조를 남겼다. '16·17세기에 활발하게 창작된 훈민시조가 지주전호제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 생겨난 계급간의 투쟁과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을 주자성리학적 윤리의 보급으로 해결하려는 재지사족들의 노력의 소산물이라는 주장'¹⁵⁾도 당시의 사회적 요구를 미시적으로 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궁극에는 조선왕조라는 유교 국가를 지탱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일에 귀결된다. 李世輔(1832-1895) 혹은 金壽長(1690-?)이나 安玟英의 훈민시조 등 시대를 격한 조선 후기의 다른 상황에서 왕족이나 가객에 의해서도 훈민시조가 꾸준히 나온 것¹⁶⁾은 조선조라는 사회적 배경 안에서 눈치보지 않고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체제 긍정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그 작품들은 사회 구성원들을 같은 이념으로 묶음으로서 '조선왕조 체제 유지'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조 사회에 순기능으로 작용한 것은 목적의식을 분명히 노출하고 있는 훈민시조만이 아니라 유가사상을 내재한 철학적 사유의 작품이나 ㉠과 같은 일부의 강호시조까지도 조선조를 하나의 가치관으로 묶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

15) 김용철, 「훈민시조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16) 전재강은 훈민시조의 창작시기를 '16세기 중기~17세기 전기'와 '17세기 후기'에서 '19세기 후기'로 나누고, 전 시기의 작가로 송순·주세붕·이숙량·정철·박선장·김상용·박인로·강복중을 들고 있고, 나중 시기의 작가로 라위소·윤선도·이간·김천택·안창후·황윤석·신갑준·조황·이세보·안민영을 들고 있다.(전재강, 「훈민시조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성격」, 한국어문학회 편 『어문학』 제79집, 2003)

합한 것으로 '시조 장르'가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유교적 가치관이라는 약을 주는 데, 시조라는 시가양식이 당의정의 糖衣로 사용된 것이다. 경기체가도 이미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樂章歌詞」에 실려 있는 경기체가 형태의 〈五倫歌〉(6장)나 〈宴兄弟曲〉(5장), 그리고 周世鵬이 경기체가의 양식으로 지은 〈道東曲〉(9장), 〈六賢歌〉(6장), 〈儼然曲〉(7장), 〈太平曲〉(5장)은 같은 유교적 이념을 담고 있지만 시조만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시는 이러해야 한다는 茶山의 생각을 언급한 바 있지만, 시조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 다음 退溪 李滉(1501-1570)의 '陶山十二曲 跋'이다.

우리 동방의 가곡은 음란한 말이 많아 죽히 말할 것이 못 된다. 이를테면 한림별곡과 같은 류는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호기를 자랑하여 방탕하며, 아울러 무례하고 거만하며 희롱하고 친압하는 것으로서, 더욱이 군자로서 마땅히 숭상할 바가 못 된다. 오직 근세에 이별의 '육가'란 것이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오히려 그것[육가]이 이것[한림별곡류]보다 낫다고는 하나 또한 세상을 놀리는 불공스런 뜻이 있고 온유둔후한 실속이 적어서 애석하다. (중략) 그러므로 일찍이 이별의 노래를 간략히 본떠서 〈도산육곡〉이란 것을 둘 지었는데, 그 하나는 뜻을 말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학문을 말한 것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익혀 노래하게 하고, 안식에 기대어 듣고자 하며,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추며 뛰게 하고자 함이니, 행여 비루한 마음을 씻어냄으로써 감발되고 융통하게 할 수 있다면,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하게 됨이 없지 않을 것이다.¹⁷⁾

17) 吾東方歌曲 大抵 語多淫哇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尚 惟近世有李龜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小溫柔敦厚之實也 (중략) 故嘗略倣李歌而作 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欲使兒輩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退溪, 陶山十二曲 跋)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계는 지양되어야 할 것과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 나라의 가곡은 '語多淫哇'하여 죽히 말할 것이 못된다고 하고, 한림별곡류와 같이 문인에 의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한 것은 숭상할 바가 못된다고 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溫柔敦厚한 내실이 있는 것이었다. 그래야 노래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感發融通하고 蕩滌鄙吝하는 유익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藏六堂 李鼈의 <육가>같이 완세불공의 뜻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 형식을 취하여 우리가 지녀야 할 뜻과 학문하는 자세를 말하는 <도산육곡> 둘을 지었다. 시조는 모름지기 이렇게 '道를 담은 그릇'이 되어야만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산십이곡>은 퇴계가 의도했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애창되었고, 많은 감화를 주었음을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潛谷 金堉(1580-1658)의 詩·文을 모은 「潛谷遺稿」에 실린 '贈吏曹參判曹先生行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매양 화장한 봄날이나 맑고 서늘한 가을이 되면 두 세 사람의 갓을 쓴 아이들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거닐기도 하며, 때로는 못에다가 배를 띄워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에게 퇴계의 <도산십이곡>을 부르게 해서 유연히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워 하여 피곤함을 잊었다.¹⁸⁾

또 조선 후기의 隱士 訥隱 李光庭(1674-1756)의 문집 「訥隱文集」 '一甫馬上詠陶山六曲'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옛날 우리 이부자[퇴계]께서 도산에서 조용히 수양을 하셨는데 도산이 앞뒤

18) 每於春和景明 秋日清涼之時 與二三冠童 杖屨逍遙 或泛舟潭上 使善歌者歌退溪陶山十二曲 悠然自得樂而忘疲(潛谷 金堉, 「芝山 曹好益의 行狀」, 「潛谷遺稿」, 贈吏曹參判曹先生行狀)

로 둘러싼 데서 지극히 즐기면서 마음의 사특함을 막으셨다. 그대가 유음을 배껴서 말 위에서 일창를 하니 산 속은 고요히 마을을 그윽히 감싸 창명함을 펼쳤는데 한 번 또 한 번 부르니 유연히 도심이 생겨서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금방 평온해 지고 칠정이 힘들이지 않고 떨어져 나가니 사특한 생각이 어찌 생기겠는가? 그대는 항상 이 노래를 불러 어찌 좌우명으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¹⁹⁾

大山 李象靖(1711-1781)은 퇴계의 <도산육곡>의 뜻을 用韻²⁰⁾한 다음과 같은 시를 짓기도 했다.

當年安宅幾時違	당년에 가정을 몇 번이나 버리고
何處彷徨此日歸	어느 곳에서 방황타가 오늘에야 돌아왔는고
家事從今更料理	집안 일 다시 잘 다독거려
莫教虛室主人非	집을 비운 주인이 그르다는 말 하지 않게 하리

또 響山 李晚燾(1842-1910)의 문집 「響山文集」 '杞泉權公行狀'에는 어릴 때부터 모부인이 도산의 가곡과 詩章, 그리고 소학에 나오는 좋은 말과 착한 행동들의 예를 아침 저녁으로 가르쳤다고 하고 있다. 더구나 <陶山十二曲>을 본떠서 <江湖戀君歌>수를 지은 張經世(1547-1615)는 <도산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찬양했다.

사람으로 하여금 들도록 하면 죽히 선한 마음을 흥기시켜 그 邪穢한 마음을 蕩滌하니 진실로 詩經 三百篇의 遺旨다.²²⁾

19) 昔我李夫子 養正在陶山 陶山前後疊 至樂寓其閑 君今寫遺音 馬上試一唱 山中寂寞鄉幽抱爲舒暢 一唱復一唱 油然道心生 不勞強把持 靈界一時平 七情不勞攘 雅思何由萌 君常歌此曲 豈必座右銘(「訥隱文集」, 一甫馬上詠陶山六曲)

20) 註: 首句用退陶先生 陶山六曲意(「大山文集」, 讀心經有感偶書)

21) 自提抱時 母夫人以陶山歌曲詩章 及小學嘉言善行 朝夕詔教(響山 李晚燾, '杞泉權承夏의 行狀', 「響山文集」, 杞泉權公行狀)

22) 使人聽之 足以興起其善端 蕩滌其邪 眞三百篇之遺旨也(張經世, 江湖戀君歌 跋)

이와 같이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강호연군가>와 같은 十二曲 系統의 노래를 낳기도 하는²³⁾ 등 유자들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선조를 지탱하는 사람들에게 지향할 바를 확인토록 했다. 물론 壬·丙 兩亂을 겪고 난 뒤 지배층 내부의 정치적 암투가 가열되고, 그들의 사상적 기반인 성리학은 오히려 비생산적인 理氣 시비와 禮訟 등 권력투쟁의 도구로 전락한 가운데 나온 유가이념의 시조가 이전과 같은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애써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시킨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시조는 분명 조선조의 선택된 시가양식이었다. 송축을 위한 것이건 훈민을 위한 것이건 철학적 사유를 담은 것이건 유교이념의 시조들이 널리 향유되었고, 그것은 조선조가 동일한 가치관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의식을 부지불식간에 갖도록 했다. 유교이념을 담은 시조가 조선왕조 체제유지에 이런 순기능을 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Ⅲ. 男女性愛의 時調와 體制蠶食의 逆機能

壬·丙 兩亂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회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했다. 변화하는 사회는 시조문학사에도 영향을 끼쳤고, 또 시조는 다시 조선왕조에 어떤 기능을 했음을 볼 수 있다.

임·병 양란을 기점으로 하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변화를 몇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조선조를 지탱하던 신

23) 張經世는 <江湖戀君歌>에서 “效退溪先生陶山六曲 作江湖戀君歌”라 밝히고 있고, 伴鷗翁 申堉의 遺稿인 「伴鷗翁遺事(全)」에는 “右十二章 皆和陶山 十二章之遺意”라 하여 <陶山曲>을 본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분질서에 생긴 변화로 中人이라는 신분이 조선 후기에 새롭게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醫·譯·律·算·曆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관들이 이들로 委巷人 혹은 閭巷人으로 지칭되었다. 이 신분의 문인들이 문학 사상 위항인문학이라는 한 분야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 위항인들 중 하류라고 볼 수 있는 일군의 인물들이 가객으로 활동²⁴⁾하게 됨으로써 시조문학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신분질서에 변동이 있다고 해도 신분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냉엄했다. 다산이 「通塞議」라는 글을 통하여 신분 차별의 폐해를 간곡히 논한 것이나, '中庶通淸' 운동이 일어난 것도 그런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신분질서를 수용하는 마음은 이미 달라졌다. 「納贖策」²⁵⁾에 의한 신분상승과 賣官賣職이 다반사로 이뤄지는 조선 후기에 '종과 상전은 하늘이 내려준 관계'라는 의미의 ㉠과 같은 훈민시조가 이전과 같은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귀천이 나뉘은 사람이 지어낸 것(貴賤分岐是人爲)"²⁶⁾이라는 譯官 高時彦(1671-1734)의 詩句가 더 당연시되었을 법하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큰 변화 중의 하나는 17세기 말 이후 통화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재물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靑邱野談」²⁷⁾에 있는 '營產業 夫婦異房'이라는 제목의 이

24) 조동일은 '平民歌客'이라 하여 위항시인들과 별도로 다루는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가객이 시조 창작을 하는 것은 위항문학 활동의 하나로 보아야 마땅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3』(제3판), 지식산업사, 1994, 187-8면 참조)

25) 재정이 고갈되었을 때 쌀을 헌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는 시책의 하나로 성종조에 처음 시행(1485년)되었는데, 임란으로 재정이 탕진된 선조조에는 그 필요성이 절실했다. 1593년(선조 26)에 戶曹의 건의로 納贖事目을 결정하여 광범위하게 시행하였는데, 향리·서얼·천민·노비 등이 급전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죄인들도 刑免될 수 있었다.

26) 조동일의 앞의 책 173면에서 재인용.

27) 「靑邱野談」권1(成大本), 李佑成·林榮澤 譯編 『李朝漢文短篇集(下)』(일조각,

야기는 머슴살이를 하던 노총각이 장가를 들어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 10년간이나 각방을 사용하여 부의 축적에 성공하게 된다는 내용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東稗洛誦」²⁸⁾이나 「東野彙輯」²⁹⁾ 등에 있는 이런 류의 治産 이야기에서 당시 사람들의 부에 대한 강한 집념을 읽을 수 있다. 재물이 다른 이념적인 것보다 더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다시 부의 편재 현상이 일어나고, 경제적 풍요는 이를 누리는 이들은 더욱 더 향락생활에 탐닉하게 된다. 유교이념 시조의 기능이 약화되고, 향락 구가의 시조가 득세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봉당정치에서 세도정치로 이어지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부패구조가 확산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 전반기까지 안동 김씨 인물들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 와중에서 왕권은 중앙 행정에 대한 장악력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중앙 세도가와 탐관오리들이 매관매직으로 얽힌 조선 후기의 부패구조는 시조문학과도 영향을 수수한다. 재물이 도덕적 이념보다도 더 우위에 서고, 부패가 만연하는 가운데 성행하는 노래가 이런 사회적 배경에 영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유교적 도덕률을 강조하던 목소리가 잦아들고, 淫哇한 내용의 시조가 득세하는 토양이 마련된 것이다. 다음은 「靑丘永言」에 실린 「蔓橫淸類」의 한 작품이다.

㊤ 色갓치 도쿄 댕흔거슬 뉘라셔 말일손가
 穆王은 天子 | 로디 瑤臺宴樂호고
 項羽는 天下壯士 | 로디 滿營秋月에 悲歌慷慨호고
 明皇은 英主 | 로디 解語花 離別홀지 馬嵬坡下에 우러거든

1992) 참조.

28) 栖碧外史 海外蒐逸本, 2권 2책 續 1책. 李佑成·林焚澤 譯編의 앞의 책 참조.

29) 李源命(1807-?) 편저. 李佑成·林焚澤 譯編의 앞의 책 참조.

허물며 날갯흔 小丈夫야 몇 百年살이라고 호을일 아니호고 속절업시
 늬으리 (『靑珍』 557, 『時全』 1525)

㉔의 “色갯치 도쿄 도흔거슬”이라는 표현은 유가적 이념을 앞세우고
 체면을 중시하면서 음왜한 내용을 질타하던 조선 전기에는 표출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그러나 이제는 과감히 이런 욕구를 드러낸다. 천자도
 하고, 천하장사도 하는 좋은 것을 나같은 소장부가 무얼 몇 백년이나
 살 거라고 할 일(色)을 하지 않겠느냐고, 마치 이전에 이러한 표현이
 억제된 것이 억울하다고 항변이나 하는 듯이 당당히 노래하고 있다. 다
 음의 작품은 이런 저런 말이 필요 없다. 성애만 있을 따름이다.

㉕ 드립더 받드득 안으니 세 허리지 즈늬즌
 紅裳을 거두치니 雪膚之豊肥호고
 舉脚蹲坐호니 半開호 紅牡丹이 發郁於春風이로다
 進進코 又退退호니 茂林山中에 水春聲인가 호노라 (『瓶歌』 975, 『時全』 937)

성행위의 노골적인 표현이다. 마치 비유로 가리워진 듯하지만, 원관
 념이 너무도 분명하다. ‘舉脚蹲坐’가 어떤 상태이며, ‘半開호 紅牡丹’이
 나 ‘茂林山中의 水春聲’이 어떤 것인지 청자는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성
 에 대해 훨씬 개방적인 현대에 있어서도 노랫말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음사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조선 후기에는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유교국가임을 표방하고
 있는 조선왕조에서 이런 노래를 개방된 자리에서 공공연히 부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妓房 혹은 風流房이라 불리는 차단된 공간에서 즐긴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
 까? 거의 사대부들만 향락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조선 전기에 비해 향
 유층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진 것을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다음은 가집의 서·발에 언급된 내용이다.

최근 俗末의 碌碌謀利之輩들이 서로 좇아 鄙吝之習을 널리 만연시켰고, 혹은 한가로움을 틈타 회롱하는 자들은 근거가 없는 雜謠와 謔浪之駭學를 일삼는데 귀한 자고 천한 자고 다투어 纏頭를 주어 이러한 습속을 복돋운다. 이것이 어찌 옛날 현인 군자의 正풍의 여과라 할 수 있겠는가?³⁰⁾

아, 주나라가 쇠퇴하자 정풍·위풍의 음란한 음이 날로 성하고, 아·송의 바른 소리가 점차 인멸되었다. 진나라·한나라에 이르자 雅曲이 흔적도 없어지고, 王風이 위축되어 차츰 흥미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중략) 애석하도다. 노래여, 노래여. 이것이 어찌 노래의 광대함인가? 이는 사람이 바름을 좋아하지 않고 음란함을 좋아하기 때문이다.³¹⁾

위의 '歌曲源流 跋'에서, 박효관은 전두를 주는 습속을 탓하며 “貴賤爭與纏頭”라고 하고 있다. 그 '賤'이 지칭하는 자들의 구체적 신분은 확인할 수 없어도, 신분이 높은 자만이 향락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또, 『海叢』³²⁾ 제4책에 실려 있는 '丐帥傳'에 거지떼의 우두머리 꼭지만이 기생과 악공을 불러 擲戎廳 앞 계단에서 크게 풍악을 차리는 내용³³⁾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어떤 류의 풍류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관건은 신분이기보다는 힘과 재력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박효관은 '俗末의 碌碌謀利之輩와 偷閑爲戲者들이 鄙吝之習을 만연시키고 無根之雜謠와 謔浪之駭學를 일삼는' 것을 개탄하고 있는데, '花源樂譜 序'에서 “適人之不好雅而好淫也”라고 탄식하는 것도 같은 맥락

30) 挽近俗末碌碌謀利之輩 孜孜相趨 熏然共化於鄙吝之習 或偷閑爲戲者 以無根之雜謠 謔浪之駭學 貴賤爭與纏頭習尙 奚有古昔賢人君子爲正音之餘波者(朴孝寬, 歌曲源流 跋)

31) 噫 周衰鄭衛之哇音日熾 雅頌之正聲漸泯 暨乎秦漢之際 雅曲掃地 王風委草 浸浸乎如夢之世 (중략) 歌乎歌乎此豈歌之自辛也 適人之不好雅而好淫也(花源樂譜 序)

32) 서울대 古圖書 不分卷 4책의 필사본. 편자 미상. 李佑成·林英澤 譯編 앞의 책 참조.

33) 李佑成·林英澤 譯編, 앞의 책, 165-168면.

의 이야기일 것이다. 격이 낮은 소리패들이 전두에 탐닉하여 음일한 노래를 부르고, 수요자들은 귀천을 막론하고 전두를 던져 이것을 부추킨다는 대목에서 당시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㊸과 같이 노골적인 性愛의 노래는 이런 환락의 와중에 지어진 것일 것이다.

사설시조의 담당층을 '양반 등 사회적으로 우월한 계층'³⁴⁾와 '중인층(내지 중간층)'으로 보는 견해³⁵⁾가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두 주장 모두 계층에서 답을 얻으려는 시도부터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노골적 성애의 노래가 불러졌을 가리워진 공간에 자리할 수 있는 계층의 폭은 넓어졌다. 士族이나 吏屬, 商人 등 조선 후기의 다양한 계층이 그런 노래의 향유자 혹은 담당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담당층을 어느 신분(계층)으로 못박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양반이든 吏胥든 상인이든 그런 취향의 인물이라면 그 담당층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다.

다만 그런 성애의 시조를 지은 작자로는 일반의 향유자보다는 그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중에서도 '옛날 현인 군자의 정음'을 추구하는 박효관과 같은 가객이기보다는 그가 비난한 '鄙吝之習을 만연시키는 俗末의 碌碌謀利之輩나 無根之雜謠와 謔浪之駭擧를 일삼는 偷閒爲戲者들'이 작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류의 모든 작품의 작자를 이들로 한정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작품의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㊸ 셋팓고 사오나온 저 軍牢의 주정보소
半龍丹 몸뚱이에 담병거지 뒤앗고서
좁은집 內近흔더 밤등만 돌녀들어
左右로 衝突하여 새도록 나드다가

34) 각주 8) 참조.

35) 각주 9) 참조.

제라도 氣盡던지 먹은 濁酒 다 거이네
 아마도 濁酒를 잡으려면 저놈부터 잡으리라
 (『蓬萊樂府』 25-25, 『時全』 1642)

㉔은 竹醉堂 申獻朝(1752-1807) 時調作品의 筆寫本인³⁶⁾ 『蓬萊樂府』에 수록되어 있는데³⁷⁾, “「좁은집內近」은 女子의 陰部를, 「밤등만 들너 들어 左右로 衝突하여 새도록 나드다가」는 밤새도록 男女間의 情交함을, 「제」는 男性의 性器를, 「濁酒 다 거이네」는 性交 後의 分泌物을 隱喩한”³⁸⁾ 이 시조가 만약 순찰사 겸 원주목사를 지낸 신헌조의 작품이었다면³⁹⁾ 사대부가 이런 종류의 시조를 지은 구체적인 예가 된다.

이상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설시조의 담당층 문제는 신분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妓房과 같은 유흥 공간에서 “드립덕 보드득 안으니~”와 같은 성애만의 내용으로 채워진 이런 류의 향락을 즐기는 취향이 있고 거기에 그런 자리에 동참할 여건이 된 누구든 그같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었다. 사대부라도 사람에게 따라 취향이 다르고, 같은 가객이라도 성향이 다를 수 있다. 격이 떨어지는 소리패의 활동을 개탄하는 박효관의 ‘가곡원류 발’에서도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음왜한 내용의 시조가 조선 후기에 극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녀의 성애를 노래하며 희희낙락할 수 있는 유흥 공간은 수월

36) 沈載完, 『時調의 文獻的 研究』, 世宗文化社, 1972, 148면.

37) 『靑丘永言』(六堂本)에는 ‘金華鎮’으로 표기되어 있다. 黃淳九는 『蓬萊樂府 小考』(『국어국문학』 85호)에서 여기서의 金華鎮이 肅宗 때 監司를 지낸 李華鎮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38) 徐元燮, 『時調文學研究』, 螢雪出版社, 1979, 282면.

39) “〈봉래악부〉에 손을 낸 사람이 있어 영동한 장난을 했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宗동일, 앞의 책, 325면)는 견해도 있지만, 軍牢에다 남자의 성기를 含意하는 중의법을 써서 軍牢의 행패를 짐짓 꾸짖는 신헌조 자신의 작품일 수도 있다고 본다.

치 않은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고, 향락에 소요되는 돈은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련을 갖기 마련이다. 다음 詩句와 같이 조선 후기의 부패와 풍악·기생은 실과 바늘의 관계처럼 보인다.

朱門多酒肉 고관대작 집안에 술 고기 풍성하고
 絲管邀名姬 풍악 울리며 아름다운 기생들과
 熙熙太平象 희희낙락 태평세월 노는 모습
 儼儼廊廟姿 나라 정치 한답시고 위엄을 부리누나⁴⁰⁾

이 뿐 아니라, 조선 후기 京鄕을 막론하고 벼슬아치의 탐학은 물론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吏胥層의 부패상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혜청 서리의 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선혜청의 다른 서리들은 호의 호식하며 화려한 집에 기생첩을 두고 날마다 향락을 일삼아도 가세가 날로 부유해져가는 것이 아닌가.”⁴¹⁾ 하는 언급도 서리의 부패상을 알려주고 있다. 일개 무부인 충주 營將 하중도가 창기 출신의 첩을 맞이하기 위해 10여 리 길에 풍악을 울린 일⁴²⁾이나, 무예별감이 창기를 끼고 풍악을 벌인 일⁴³⁾들은 모두 당시의 부패상을 웅변해 주는 일들인데, 여기에 기녀가 빠짐없이 끼어들어 있다.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조선 후기 세도정치 하에서의 사회는 성애를 노래하는 시조가 생겨나는 온상이 되었고, 결국 이런 향락적인 성애의 노래는 조선조를 조금씩 잠식하고, 결국에는 붕괴에 이르게 하는 데 영향을 끼친 셈이 된다. 물론 조선조 붕괴의 모든 원인을 여기

40) 茶山の〈飢民詩〉의 일부. 金相洪의 『茶山 丁若鏞 文學研究』(檀大出版部, 1986 (재판), 157-8면)에서 재인용.

41) 『海東野書』 ‘聽良妻惠吏保命名’, “他吏之甘其食 美其服 貯妓女於華屋之中 日事行樂而加計日富”

42) 『숙종실록』 권25. 숙종 19년(癸酉 1693) 팔월 乙亥, 실록 39책 282면.

43) 『영조실록』 권82. 영조 30년(1754) 10월 丁未.

에서 찾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향락·퇴폐적 노래가 '조선조 사회를 잠식'하는 데 일조한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이것이 이 시대에 성행한 性愛時調가 조선 사회에 끼친 역기능의 일면이라고 할 것이다.

IV. 朝鮮朝 時調의 社會的 機能과 詩文學史的 意味

「靑丘永言」의 편자인 金天澤이 「청구영언」을 磨嶽老樵 李廷燮(1688-1744)에게 보이면서 '이 책은 실로 많은 우리 나라 선배·명공·위인의 작품들을 널리 모은 것입니다. 민간의 음란한 이야기와 상스럽고 외설스런 가사도 왕왕 있습니다. 노래는 실로 작은 재주인데 계속해서 군자가 이것을 보아도 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는지요?' 하고 물었다.⁴⁴⁾ 그러자 마악노초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괜찮다. 공자께서 시경을 편찬하시면서 정풍·위풍을 버리지 않으신 것은 선과 악을 갖추어 권장하고 경계하는 뜻을 두신 까닭이다. 시가 어찌 반드시 주남의 관저 뿐이며, 노래가 어찌 순임금 때의 갱재 뿐이리오. 다만 성정을 떠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이다.⁴⁵⁾

마악노초의 대답과 같이 詩·歌에 關雎나 廣載뿐만 아니라 鄭風과 衛風 것도 있기 마련이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다.

마악노초가 언급하고 있는 공자는 “詩에서 (착한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흥기시키며, 禮에 서며, 樂에서 완성한다.”⁴⁶⁾

44) 金天澤 一日持靑丘永言一編 以來視余曰 是編也 固多國朝先輩名公鉅人之作 而其廣收也 委巷市井 淫哇之談 俚藝之設詞 亦往往而在 歌固小藝也 而又以累之君子覽之 得無病諸 夫子以爲奚如(磨嶽老樵 靑丘永言 後跋)

45) 無傷也 孔子刪詩 不遺鄭衛 所以備善惡 而存勸戒也 詩何必周南關雎 歌何必虞廷廣載 惟不離乎 性情則幾矣(磨嶽老樵 靑丘永言 後跋)

고 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朱子는 다음과 같이 註를 달았다.

흥은 흥기하는 것이다. 시는 성정에 근본하여 그른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는데, 그 말한 것이 이미 알기 쉽고, 읊는 사이에 억양과 반복이 있어 사람을 감동시키기가 또 쉽기 때문에 배우는 초기에는 착함을 좋아하고 악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이 시에서 얻게 된다.⁴⁷⁾

주자의 주처럼 '시는 성정에 근본하여 그른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기 마련이다. 김천택은 '蔓橫淸類 序'에서 "만횡청류는 노랫말이 음쇄하고 뜻과 지취가 보잘 것 없어 족히 본받을 만하지 못하나 그 전하는 바가 이미 오래"⁴⁸⁾라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 오래되었다고 말하는지 알 수 없다.⁴⁹⁾ 분명한 것은 조선 전기에는 사회 분위기가 '그른 것'의 표출이 극히 억제되어 그런 작품이 지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살폈듯이 퇴계는 이 '그른 것'을 철저히 비판했다. 고려 속가를 부정적으로 본 조선 초기의 신흥 사대부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사대부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던 조선 전기에는 음쇄한 내용의 노래가 억제될 수밖에 없었다. 유교적 이념을 표출하는 시조는 당연히 힘을 얻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이전에 억제되었던 남녀상열의 노래가 분출되어 나온다. 조선 전기 사대부들이 비판했던

46) 子曰.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論語』 泰伯第八)

47) 興, 起也. 詩, 本於情, 有邪有正, 其爲言, 其易知, 而吟詠之間, 抑揚反覆, 其感人又易入, 故學者之初, 所以興起好善惡惡之心, 而不能自己者, 必於此而得之.

48) 蔓橫淸類 辭語任哇 意旨寒陋 不足爲法 然其流來也已久 不可以一時廢棄 故特題于下方 (『靑丘永言』 蔓橫淸類序)

49) 조동일은 '그 말대로라면 누백년의 내력을 가졌을 듯하지만 그럴 수는 없고, 말썽이 일어날 수 있는 작품을 신는 구실로 오래되었다고 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조동일, 앞의 책, 324면)

고려 속가가 무색할 정도의 노골적 성애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설혹 '인간탐구의 진정성'⁵⁰⁾을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향락문화의 범주에서의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구성원들에게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조선조가 지탱하는데 기여한 유교이념의 시조나 사회의 부패구조를 토양으로 조선조를 잠식하는 데 일조했을 남녀성애의 시조는 공히 조선조와 운명을 함께 한다. 이 작품들은 다시 조선왕조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한 조선조만이 가지는 독특한 유산이다. 따라서, 그 문학적 가치는 다른 시조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적·역사적 의미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다른 어떤 작품들보다도 조선조의 특수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또한 그것들의 시문학사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시문학사적으로 짚어야 할 것은, 시조문학 담당층이 조선 후기에 들어 확대된 점이다. 시조문학 담당층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유교이념의 시조든 남녀성애의 시조든 그것을 짓고 향유하는 신분계층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중인 가객들도 유교이념의 시조를 적잖이 지었고, 사대부도 아주 외설적인 표현의 시조를 지었을 가능성도 확인했다.

따라서 사설시조의 담당층의 문제는 계층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해졌다. 성향의 문제인 것이다. 가객도 가객 나름이고, 양반도 양반 나름이다. 예도를 추구한 가객도 있고, 금전을 추구한 가객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유가의 법도를 준수하려는 양반도 있었고 환락에 넋을 잃은 양반도 있었다. 그러니 양반이나 중인, 심지어 일부의 하층민까지도 그런 노래의 담당층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들 작품의 주된 창작자는 아무래도 그 방면에 종사하는 전

50) 김홍규, 「사설시조의 愛慾과 性的 모티프에 대한 재조명」, 韓國詩歌學會 편 『韓國詩歌研究』, 2003, 200면.

문가일 가능성이 많은데, 박효관과 같은 성향의 가객 쪽이기보다는 그가 비난한 격낮은 소리패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들이 “육망과 사회관계의 모순, 불균형, 충돌 속에서 갖가지 인물들을 관찰하고 그누추함조차도 이해하며 연민할 줄 알았던 안목의 소유자들이라는 점만은 분명”⁵¹⁾하다면 박효관이 낮춰본 그 소리패일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 하나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고려의 속가를 ‘男女相悅之詞’라 하여 망국의 노래쯤으로 보면서도, 그보다 훨씬 외설적인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에 대해서는 인간의 성적 욕구를 솔직히 표출한 노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좀 더 형평성 있는 시각으로 두 대상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 왜 이런 이중의 잣대가 용인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고려 속가가 고려왕조의 붕괴와 함께 한 것이라면, 조선의 사설시조는 조선왕조의 몰락은 물론 봉건체제의 붕괴에도 아울러 영향을 받은 때문이다.

V. 結 論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詩의 사회적 기능이 있듯이, 조선조의 시조도 나름의 사회적 기능이 있었다. 16세기에 들면서 시조는 사대부들에 의해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르로 주목을 받았다. 유교적 이념을 전달할 적절한 도구로 본 것이다. 그들이 지은 유교이념의 시조는 조선조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갖는 이념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부여했다. 조

51) 김홍규, 앞의 논문, 200면.

선왕조로 봐서 체제를 유지토록 하는 순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경기체가 가는 이미 이런 기능에 적합한 시가양식이 되지 못했다.

‘도산십이곡 발’은 시조란 모름지기 이런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대표적인 글이다. 퇴계는 공호방탕하고 설만희압한 내용을 배격하고 온유둔후한 내용을 갖추기를 강조했다. 이러한 가치관의 영향력이 컸던 조선 전기에는 음왜한 내용의 시가가 최대한 억제되었다.

그러나, 신분질서의 요동, 통화경제의 발달, 부의 편재, 부정부패와 향락추구의 사회적 분위기 등의 변화를 겪는 조선 후기에 오면 조선 전기에 억제되었던 음설한 내용의 노래들이 분출되어 나온다. 부패구조와 연결고리를 갖는 향락생활에는 자연 이런 음일한 내용의 노래가 따른다. 결국 음설한 노래는 조선조를 잠식하고 종내에는 붕괴토록 하는 데 한몫을 하게 된다.

사설시조의 담당층 문제에 대해 분명히 밝힌 점은 양반층이나 중인층이나 하는 접근법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담당층의 범위는 조선 전기에 비해 훨씬 확대되었다. 양반이나 중인, 심지어 일부의 하층민까지도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자리에 동참할 여건이 된다면 사설시조 담당층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다만, 이들 작품의 주된 창작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는데, 현인군자의 正音 추구를 표방하는 박효관과 같은 성향의 가객보다는 그가 비난했던 격낮은 소리패 쪽일 것이라는 짐작을 해 볼 수 있다.

詩歌 세계는 ‘바른 것’ ‘그른 것’이 공존해 왔다. 조선 전기에는 음왜한 내용의 시가가 매우 억제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오면 사회적 변화와 함께 억제되었던 음일한 내용의 사설시조가 극성한다. 한쪽이 盛할 때 한쪽이 弱해지는 이런 상관관계를 가진 ‘유교이념의 시조’와 ‘남녀성애의 시조’는 조선조의 붕괴와 함께 쇠락한다. 그래서 시가문학 사상 兩者를 볼 때, 공히 문학성은 다소 떨어질지 모르지만 조선조 존

립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 측면에서는 다른 시조들보다 더 큰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망국의 노래쯤으로 여겨지는 고려 속가에 비해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가 훨씬 더 음설한 데도 사설시조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시각이 용인되는 것은 고려 속가가 고려 왕조의 멸망에 일조한 데 그쳤다면, 사설시조는 조선왕조의 몰락은 물론 봉건체제의 붕괴에도 아울러 영향을 받은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미숙,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 權五慶, 『古樂譜所載 詩歌文學研究』, 민속원, 2003.
- 김명희, 「고전시가에 나타난 성 의식 고찰」, 『時調學論叢』(韓國時調學會) 제18집, 2002.
- 金相洪, 『茶山 丁若鏞 文學研究』, 檀大出版部, 1986.
- 김용찬, 『18세기의 시조문학과 예술사적 위상』, 월인, 1999.
- _____,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지형도』, 보고사, 2002.
-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 김홍규, 「사설시조의 愛慾과 性的 모티프에 대한 재조명」, 『韓國詩歌研究』(韓國詩歌學會) 제13집, 2003.
- 朴奎洪, 『時調文學研究』, 형설출판사, 1996.
- 朴乙洙, 『韓國詩歌文學史』, 亞細亞文化社, 1997.
- 徐元燮, 『時調文學研究』, 형설출판사, 1979.
- 沈載完, 『校本 歷代時調全書』, 世宗文化社, 1972.
- _____, 『時調의 文獻的 研究』, 世宗文化社, 1972.
- 尹榮玉, 『時調의 理解』, 嶺南大 出版部, 1986.
- 이상원,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월인, 2000.
- 李佑成·林榮澤 譯編, 『李朝漢文短篇集』(上)(中)(下), 一潮閣, 1992(重版).
- 전재강, 「훈민시조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성격」, 『어문학』(한국어문학회) 제79집, 2003.
-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 조규익, 『蔓橫淸類』, 박이정, 199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제3판), 지식산업사, 1994.
趙潤濟, 『朝鮮詩歌史綱』, 東光堂書店, 1945.
_____, 『韓國文學史』(개정3판), 探求堂, 1974.
秦東赫, 『古時調文學論』, 夏雨,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Functions of Sijo

Park Kyu-Hong

In early Josun(朝鮮) era, the scholars, genteels, and high officials in Josun dynasty paid attention to Sijo(時調) who hoped Josun society would share Confucian values. Sijo poems written by them are based upon Confucian ideology, giving an opportunity to its members to make sure their homogeneity and helping Josun dynasty sustain its regime. Gyongichega(景幾體歌) has, however, already failed to be an appropriate genre to do these functions.

Nevertheless, in the late Josun dynasty when there were agitation in class hierarchy, development of currency economics, maldistribution of wealth, and pursuit of enjoyment, obscene poems turned out. Consequently these songs contributed to encroaching and eventually destroying the Josun dynasty.

The question that who are in charge of creating and enjoying Sasulsijo(辭說時調) cannot be answered by approaching it in the social class point of view. The range of the maker or the reader of

Sasulsijo in the late Josun dynasty was much more extensive than that in the early times. Not only aristocracy or the middle society but even some of the lower class may have made and enjoyed those songs. In the meantime, it is singer-songwriters whom Park, Hyogwan blamed for their profiteering abuse of obscenity that is supposed to have been mainly responsible for the creation of those songs.

Siga is a double-edged art in its essence--the good and the bad. The lewd songs were, in the early Josun, strictly controlled but in the late Josun dynasty, were thriving due to social changes. In this context, songs based on Confucian ideology as well as the ones focused on sexual love became decayed along with the collapse of the Josun dynasty. Even though, in the light of the history of Siga, those two types of Siga are underestimated in its artistic value, they have very special social historical meaning in doing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for existence and destroy of the Josun dynasty.

Keywords : Siga, Sasulsijo, Social Functions, Confucian values, Singer-song writers, Josun.